



재개관 제주아트센터 연말까지 굵직한 무대

작년 12월부터 8개월 휴관
공연장 무대 리모델링 공사
오는 8일 관악제 개막 시동
9월 선우예권 피아노 독주회
10월엔 국립오페라단 ‘박쥐’
12월 이자람 판소리 등 초청



제주아트센터 재개관 기념 기획 공연으로 9월 제주를 찾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제주아트센터 누리집

제주시 도심에 자리한 공공 공연장인 제주아트센터가 8개월에 걸친 무대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새롭게 문을 연다. 이달 8일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개막 공연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제주아트센터는 연말까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독주회,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등 16건의 기획·공모 사업 선정 공연을 준비했다.

2월 제주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무대와 부속 시설 전면 철거·재시

관악제 개막 공연(8일 오후 7시30분)에 이어 오는 22일 오후 2시와 6시, 23일 오후 2시 창작 뮤지컬 ‘검은 절망’을 펼친다. ‘검은 절망’은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공간 오이와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제주아트센터가 협력한 작품이다. 급격한 기후 재난으로 지구가 빠르게 물에 잠기고, 태양을 피해 밤을 따라 비행하던 항공편이 불시착하면서 마주한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오는 29일 오후 3시엔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웅변합 기획 공연 ‘별(別)세계’를 무대에 올린다. 이 역시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마로와 제주아트센터, 김정문화회관이 협력한 무대로 국악과 발레,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제주 신화를 새롭게 풀어낸다.

9월에는 ‘작가의 음악: 김영하 작가’ (9월 5일 오후 5시)란 이름으로 음악이 흐르는 토크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튿날엔 한국인 최초로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9월 6일 오후 5시)을 마련했다.

10월에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레타 ‘박쥐’ (10월 2-3일)가 제주아트센터를 찾는다.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협업해 펼치는 무대다. 이와 함께 연극 ‘다인의 삶’ ‘젤리 피쉬’ 등 화제의 무대도 재개관 기념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12월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주인과 하인’을 원작으로 한 소리꾼 이자람의 ‘눈, 눈, 눈’이 제주에 온다. 최근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는 등 평단과 관객의 호평이 이어지는 작품이다.

한편 제주아트센터는 8-9월 주요 공연 일정을 누리집에 예고하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사가 진행돼 주차장이 협소하다’며 긴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觀 호프

완벽한 가미 요리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개봉 후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식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지난달 15일 개봉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아 온 영화다. ‘추격자’, ‘황해’, ‘곡성’과 ‘랑종’에 이르기까지 그가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모든 영화들이 화제성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또한 그는 비평가들은 물론 대중까지 해석의 장에 참여시킨 창작자이기도 하다. 좋은 삶든 관객들이 물고 뜯고 씹는 행위의 끝까지 가보고 싶게 만드는 영화를 내놓는 요리사가 나홍진이 아닐까. 다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맛있어서 한번 더 맛보고 싶은 성찬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입맛을 버리게 만든, 한 끼도 채워주지 못한 무엇이 창작자 나홍진이 내놓은 신메뉴 ‘호프’다.

‘무언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죽여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플롯의 영화는 내내 추격하거나 추격을 당하는 거대한 리액션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험거운 개연성을, 욕설로만 도배된 대사를, 새롭지 않은 크리쳐 디자인과 이해할 수 없고 완결되지 않은 결말을 이 영화의 단점으로 지적한다. 다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호프’에 열광하는 관객들은 단점으로 지적된 영화의 빈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스스로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를 확장한다. 제목은 ‘희망’이고 만든 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약속’을 저버린 영화의 모양에 대해 성토했다. 영화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완성품이어야 한다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호프’는 그 믿음을 배신한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모양새로 실패적인 영화인 동시에 미완성인 영화이고 속편



영화 ‘호프’.

을 염두에 두었다는 미지근한 가능성을 흥행이라는 관객의 투표에 맡기는 비겁한 영화다. 한편 ‘호프’에 열광하는 이들은 영화를 자신만의 슬라임처럼 주무르며 쾌감을 느끼는 중이다.

음식에도, 영화에도 별점으로 결과물에 대한 소비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요즘의 소비자들은 평가에 적극적이고 매서운 확신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재고의 여지는 없는 쪽에 가깝다. 새로운 파도가 밀려들듯 쏟아지는 또 다른 창작물들이 대중의 소비와 평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빠른 회전율의 시대에 ‘호프’는 식당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요리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혹은 요리사가 없더라도 내가 느낀 맛의 매력을 공감해 줄 타인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발견한 작품이다. 해석과 해설로 정답을 찾는 일에 분주했던 관객들이 ‘호프’의 본문에 각자의 주석을 달고 있다. 잊혀진 영화의 잔상이 남긴 것들이 입을 열게 하고 글을 쓰게 한다는 것은 어려모로 긍정적인 일이다.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새롭게 시작되는 영화적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김창열미술관 오는 5일 ‘미술관에서의 춤’ 운영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이달 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에 걸쳐 ‘미술관에서의 춤’을 펼친다. ‘2026 김창열미술관 아트 스테이지’의 일환으로 제주에 살고 있는 현대무용가인 기은주가 기획한 전시형 라이브 아트 퍼포먼스 프로젝트다.

이날 방문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퍼포먼스의 흐름을 따라 미술관 로비, 전시실, 복도, 중정 등을 이동하며 시각 예술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출연진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선착순)을 해야 한다.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인 이날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파리의 화가 김창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진선희기자

오등봉 음악당 운영 준비단 가동 예정

도, 정원 조례 규칙 개정안
4급 1명 등 준비 인력 6명
2028년 7월까지 한시정원
준공은 2027년 10월 목표
“기부 채납은 시운전 이후”



오등봉공원 음악당 투시도. 제주시 제공

제주도는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으로 짓고 있는 공원 내 음악당 개관을 앞두고 준비단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음악당 운영 준비 6명 배치 등을 담아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에는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음악당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2028년 7월 31일까지 일 반직 6명을 제주도에 둔다고 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이들 인력으로 꾸려질 준비단은 이달 25일 시행하는 위생군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에 맞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준비단에서는 앞으로 개관에 따른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운용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어디에서 음악당을 운영할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오라2동 888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음악당은 연면적 1만 41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1200석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블랙박스형인 300석 규모 소공연장, 리허설룸 등이 들어선다. 2027년 10월 준공 목표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41.52%에 이른다.

이번 음악당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행정시인 제주시가 공사를 관리하고 제주도에서 개관을 준비하는 이원화 구조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제13대 도의회 개회 이후 첫 제주도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달 22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음악당 기부 채납 시점을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행정시와 논의해 시설 공사가 끝나고 시운전까지 한 다음에 기부 채납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여름 바캉스 특가 여행
주말 1박2일
익산+광주+담양+순창

익산 보석박물관, 아가페정원, 담양 소쇄원 & 죽녹원, 고스락, 강천사, 메타 프로방스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 광주공항 도착 → 익산 보석박물관 → 중식
→ 아가페정원, 고스락카페 → 고도세트장 ✨석식🍷 → 광주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담양 소쇄원 → 죽녹원 → 중식
강천사, 메타 프로방스, 광주공항 출발 ✈️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특가 399,000원 **3인1실 특가 395,000원** **4인1실 특가 39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8월 15일(단, 1회)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마지막 바캉스 1박2일
쿨링여행
청주+단양+충주+제천

더위는 날리고~ 힐링은 가득!
시원한 여행지에서 즐기는 특별한 1박2일!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청주공항 도착
청룡 나루 크루즈, 단양 고수동굴, 단양 강진도

2일차 조식(호텔식) - 단양 구인사(천태종 총본산)
단양 온달동굴 - 본초다담(죽목 한방체험) 청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49,000원 **3인1실 445,000원** **4인1실 44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8월 22일, 29일, 9월 5일, 12일, 19일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리가는 주말 1박2일 가을여행
전남(순창,구례,순천) + 경남(하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광주공항 도착 - 순창 체재산 출렁다리
- 중식 - 구례 사성암 -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호텔 체크인 후 조식 - 하동 삼성궁 - 중식
- 최첨단관 관광 - 하동 화개장터 -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399,000원 **3인1실 395,000원** **4인1실 39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최첨관대 최첨관대, 하동 화개장터

출발일: 8월 22일, 29일 / 9월 5일, 12일, 19일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